

전주국제영화제 · 한국의 꽃심 · 전주완판본체 · 전주푸드 플랜 · 전주얼수 · 드론축구

메이드인 전주... 도시 자생력 밀거름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 자립과 먹거리 자립, 에너지 자립, 문화 자립을 통해 전주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이는 전주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열쇠이자 도시시대를 열기 위한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독립·실험·예술 영화의 표현의 해방구인 전주국제영화제는 전주의 문화 자생력을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시대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담은 영화를 가감 없이 소개해 영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인정받은 영화제로 전주국제영

화제의 강렬함의 상징이자 전주의 열정을 나타내는 영화제의 고유색인 전주레드가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

또 역사와 문화, 전주사람들의 삶속에서 전해져 온 전주만의 정체성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인 전주정신을 찾아 확산시켜온 도시이기도 하다.

전주정신인 '한국의 꽃심'은故 최명희 작가가 대표작인 '혼불'에서 자신의 고향인 전주를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칭찬에서 착안한 전주인의 공통된 정신으로 △대동 △종류 △울곧음 △창신의 정신이 담겨 있다.

시는 시민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약 1년 6개월의 연구 끝에 꽃심을 전주정신으로 선포하고 널리 알리며 경

쟁력을 키워 왔다. 여기에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도시이자 조선후기 출판문화를 선도했던 출판문화 거점도시라는 역사를 잇기 위해 전주완판본체라는 고유의 서체를 가진 도시이기도 하다.

전주의 역사성과 민중문화의 해학 등이 담긴 전주 본연의 서체인 전주완판본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한글과컴퓨터가 '한컴오피스 NEO' 프로그램의 기본서체에 탑재하는 등 한글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보급하는데 동참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전주푸드 플랜을 통해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시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지역 내 식량 생산·소비 구조도 만들어 왔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전주얼수'라는 전주만의 수돗물 병입수도 생산해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사회단체 구호나 자선행사 등에 무상으로 공급해 왔다.

전주시가 탄소산업과 드론산업,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보급한 드론 축구는 전주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만들어낸 결정체로 손꼽힌다.

드론축구가 활성화되고 전주가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도시가 되면 관련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돼 전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채규남 기자

청명·한식기간 개장유골 화장 확대

전주 승화원, 4일~8일까지... 22일부터 인터넷 예약가능

전주시시설공단이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청명·한식기간(5일간) 동안 전주승화원 개장유골 화장을 확대 운영한다.

시설공단은 이 기간 전주승화원에 유골화장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고 유골화장 예약기수를 평소대비 최대 10배 수준인 160기로 확대, 이용객 편의를 위한 특별 운영 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평상시 개장유골 화장은 하루 8건 정도이나 4월 5일 한식일 전후 개장유골 화장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화장로 6기 중 3기는 시신화장, 3기는 개장유골 화장에 배분해 운영한다.

특히 한식일에는 오전 8시부터 화

장 종료 시까지 모든 화장로기를 가동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개장유골 화장 예약은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 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장 1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 사용료는 전주·원주군 소재는 28천원, 도내 90천원이며, 효자공원묘지내 소재한 개장유골에 한하여 화장 사용료 전액감면 및 봉안시설(자연장포함)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시설공단 전승화원 전화(239-2690)로 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군부대·군청앞서 '장송곡' 든 시위자들 집행유예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

군부대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진행해 장병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소음 시위가 합리적 의사소통 전달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중찬 부장판사는 8일 전북 임실 35사단과 임실군청 앞에서 지속해서 '장송곡'을 틀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회가 이뤄졌고, 소음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 초범인 점,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 19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 등을 틀어 군장병의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11년 3월 28일~2012년 12월 1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72~81dB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화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든 것으로 드러났다. /채규남 기자

혁신도시 연순공원에 농구장 1면 조성

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추가 조성한다.

시는 혁신도시 연순공원(덕진구 장동 1073일원)에 총 사업비 1억 1300만 원을 투입해 농구장 1면을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청소년 등 주민들이 이곳에서 건전한 스포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향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시설을 생활공간 주변에 단계별로 확충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재정신청 인용해야"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들은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담당 재판부는 '전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주시, 15일까지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3,46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발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당초 조사와 평가한 자료 및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표준지를 활용해 총 13만 9,887필지(완산구 66,137, 덕진구 73,750)의 개별공시지가를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 시청 생애도시계획과 또는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447)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